

지역농업조직의 유기농산물 생산 및 판매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 충남 연기군 전의신협 생산협동반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현태*, 강창용**

A Case Study on Production and Marketing Activities of Organic Farming
Products in Regional Integrated Farming Group

Park, Hyun Tae* Kang, Chang Yong**

Abstract

Some devices of sustaining the small scale farming in the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in which comparative disadvantages are evidently to be experienced in the near future, are becoming a central proposition in the Korean agriculture. In this connection, development of integrated activities in farming among individual farmers within a region may be an important device of overcoming prevailing limits of resource possession and use of individual farmers. These inter-farm or inter-group cooperation and integration can be promoted through establishing efficient cooperative system within a farming distri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find facts pertaining to situations leading to successful performance of cooperative systems in group farming. In this study, The case is Cheunee Myun, Yungi-Gun, Chungchungnam-Do in which farming is specialized in production of so called "organic farming products" and farmers are integrated for increasing their productivity.

I. 서 론

오늘날 농가의 경영형태는 농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專門化·單一化의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小農經濟의 개별경영에서는 생산자원의 제한때문에 규모의 유리성에 의한 자원의 효율을 충분히 발휘할 여지가 극히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지역공간에 존재하는 다수의 經營群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여 조직·운영함으로써 내부 및 외부 경제의 효과까지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해당지역에 있어서의 농업생산의 발전과 농민의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농가간 또는 경영유형간의 협동조직을 통한 지역농업의 전개는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自救策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농업현실을 고려하고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역농업¹⁾ 문제가 대두되고 이는 다시 지역농업조직화와 지역농업계획이라는 학문적 틀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지역농업조직화에 초점을 두고 현재 지역농업조직의 활동이 대체로 양호한 충남 연기군 전의신협 생산협동반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사례조직은 농촌신협을 중심으로 유기농법의 도입을 통한 생산력 향상과 직거래 사업의 전개를 추구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례조직의 운영실태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사례지역과 유사한 지역에서의 지역농업조직활동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사례지역의 개요

1. 사례지역의 일반현황

1) 자연적 여건

사례지역 및 조직은 충남 연기군 전의면소재 전의신협 생산협동조직이다. 전의면은 연기군내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준산간지역으로 천안군과 공주군에 인접해 있다. 군소재지가 있는 조치원까지의 거리는 16km, 대도시인 천안까지는 19km, 대전은 68km이고 경부철도와 경부국도가 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이다. 서울 가락동도매시장까지의 거리도 110km로서 시간상으로는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전의면의 전체면적은 7,898ha로 이중 임야가 66.1%에 이르고 경지는 25.8%인 2,039ha에 불과하다. 경지면적은 논이 비중이 밭보다 더 크다.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1.15ha로 연기군 평균 1.13ha보다는 약간 크지만 충남도의 1.26ha, 전국의 1.20ha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다.

1) 지역농업이란 용어는 실제(reality)의 개념으로서 일상적으로 인지되고는 있지만 학술적으로 엄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吉田 忠(1980, p.4)은 '농업생산, 농산물 판매의 양면에서 지역주체를 갖는 조직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라 했다. 한편 농협중앙회(1984)에서는 지역농업을 '농업전체에 대치되는 부분농업, 즉 한국농업의 구성요소로서 지역농업, 또는 개별농가의 영농(개별농업)에 대치되는 營農群 내지 영농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경제적인 수익성의 추구하고 사회경제적인 생산력의 추구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사경제와 국민경제의 이원론적 입장에서 농업경영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본다.

2) 농업여건

(1) 농가구조의 변화

전의면의 농가인구는 1970년 9,622명에서 1993년 현재 10,513명으로 지난 20여년간 9.3%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의 농가인구 감소추세와는 대조적이다. 이는 전의지역이 천안시에 인접해 있어서 도시근교농업에 적합한 입지이고 전의면내에 공단이 형성되어 농외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연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최근 이 지역에서는 상업적 농업의 전개가 활발하여 시설채소나 과수등의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고 대규모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2) 작부형태

중전에 전의지역에서 재배되는 주요작목은 논외의 경우 벼단작외에 담배와 오이가 벼와 2모작으로 재배되었고, 밭은 고추, 담배, 콩등이 단작으로 재배되었다. 그러나 최근 시장출하가 늘어나면서 수도작외에 오이나 상치등 신선채소류와 토마토, 수박, 딸기, 참외등 과채류, 그리고 과수로는 배와 복숭아의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1982년부터 전의신협내에 지역협동반이 구성되고 전의신협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동조직을 중심으로한 유기농업의 실천을 통해서 이 지역 농업생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생산협동반조직의 구성

전의신협은 1979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지역주민전체의 32%인 3,365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신용사업 뿐만아니라 영농활동지원, 지역사회개발사업등에 앞장서고 있는 모범적인 농촌신용협동조합이다. 조합원을 중심으로 1982년 생산협동조직이 처음 구성되었으나 그 활동은 미진하였고 1985년부터 특용작물반, 농가공반, 부녀반, 청년반이 조직되면서 여러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특히, 8년전부터 유기농법이 도입되어 현재는 수도작, 채소류, 과채류등이 유기농법으로 재배되고 있고, 지역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여 김치류와 장류의 가공사업도 활발하다. 유기농법도입을 위해 전의신협 이사장을 비롯한 협동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일본에 연수를 다녀왔거나 일본의 유기농업전문가나 국내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화를 마련하는등 식품공해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의지역에서 유기농법이 일찍 도입된데는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이 지역의 주작목은 고추와 담배인데 이들작목의 연작장해가 심하게 나타났고, 천안과 인접한 관계로 공장들이 다수 들어섬에 따라 농지의 황폐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측면은 전의신협의 현 이사장인 윤석규씨가 유기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본과 교류를 통해서 유기농법에 대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장려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유기농업에 대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사)한국유기농업협회의 충남 연기군지회업무를 전의신협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생산협동조직의 구성은 <표1>과 같다.

표1 전의신탁내의 생산협동반 현황

협동조직명	조직수	설립년도	참여농가	면적및규모	주요작목
미작반	3	1987	34	150,000 평	신탁1호벼, 신탁2호벼, 잡곡류
채소반	1	1986	13	40,000	토마토, 상치, 썩갓, 열무
특작반	1	1985	105	50,000	오미자, 지황 등 약초류
화훼반	1	1986	12	30,000	철쭉 등 관엽류
축산반	3	1986	32	-	비육우, 젖소, 양돈, 육계
농가공반	3	1982	28	-	김치류, 된장, 간장, 메주

이들 생산협동조직은 작목반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동조직간의 노동력교환이나 자원교환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 협동조직가운데서도 미작, 채소, 농가공반의 활동이 활발한 편이고 축산과 특작, 화훼의 활동은 미진한 편이다. 미작, 채소등은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농법의 적용만을 통하여 생산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농가간에 동질성이 많아 비교적 협동이 잘 이루어진다. 이에 반하여 축산이나 화훼는 상당한 자금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각 농가에 따라 다양해서 동질적인 요소를 찾기가 힘들고 그만큼 협동이 발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생산협동반은 기술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일본)를 통하거나 외부인사(종묘사, 유기농업기술지도단체, 농촌지도소)를 초청하여 강습을 받기도 하고, 품목별 반원들간에 영농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보다 양질의 농산물을 보다 많이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 생산협동반의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Ⅲ. 생산협동조직의 운영실태

1. 생산실태

1) 미작협동반

미작협동반은 그동안 양질의 쌀을 재배하여 왔으나 1988년부터 일본의 고품질 품종인 쿠슈지방의 고시히카리를 도입하여 이를 토착화시켜 나가면서 1990년부터는 명칭도 「신탁1호쌀」이라 명명하고 보다 철저한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1992년에는 니가다지방의 고시히카리품종을 도입하여 「신탁2호쌀」이라 명명하고 1만여평의 시범포를 마련하여 시험재배후 1994년부터 확대 재배하고 있다. 최근 이 품종의 재배실적은 <표2>와 같다.

표 2 실험1,2호쌀 재배실적

구 분	1990	1991	1992	1993
재배면적(평)	28,400	76,400	36,400	73,200
생산량(M/T)	34	92	44	88

이들 품종은 기존의 품종(일품벼, 추청)과는 다른 방법으로 재배되고 있다. 즉, 기존 품종은 평당 70-80柱를 식재하고 1柱當 本數도 7-8개를 심고 있으나 이들 품종은 평당 33-40柱, 1柱當 本數도 2개이다. 이와 같이 식재간격이 월등히 넓기 때문에 통풍이 잘되어 병충해 발생이 적고, 방제작업이 불필요하여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나 냉해에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배방법 때문에 수확량에서는 10%정도 감소하나 품질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판매에서 유리하다. 현재 이들 품종의 농가수취가격은 가마당(80kg) 15만원으로 기존의 일반쌀보다 4만원이 상을 더 받는다. 따라서 농가입장에서는 10a당 112천원 이상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1992년도에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에 벼의 倒覆현상이 나타나 농가들이 면적확대를 기피하였기 때문이나 93년부터는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미작협동반의 농작업은 주로 품앗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실험쌀]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한 곳에 공동못자리를 마련하여 공동관리하고 있다. 농기계 또한 공동이용하고 있고 농작업의 외부위탁은 없다. 부산물인 벃짚은 전량 절단하여 퇴비로 활용하고 있다.

2) 채소협동반

채소협동반이 재배하고 있는 품목수는 토마토, 상치등을 비롯해 20여 품종에 이른다. 이중 상치, 쑥갓을 비롯한 6-7품목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고, 토마토, 여름채소등은 노지재배이다.

토양은 구비를 이용한 유기농법으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지력은 아주 양호하다. 퇴비제조시 필요한 구비는 일부 축산협동반에서 구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최근 미생물을 활용한 토양관리가 보급되어 퇴비의 사용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야채 생산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파종과 수확시기에는 많은 노동력을 소요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협동반 농가간에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된 농산물은 약 30%가 전의실험을 통하여 직거래되고 있고, 50%는 상인출하, 나머지 20%는 농가가 직접 천안이나 전의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3) 특작협동반

특작협동반은 1992년까지만 하더라도 약초류와 터덕을 재배하면서 그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활동이 극히 미약한 편이다. 그 이유는 중국의 약초가 들어오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판로가 어렵게 되었고, 전의지역의 토질 및 기후조건이 약초재배에 부적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작협동반은 현재 타작물로의 전환을 고려중에 있다.

4) 축산협동반

축산협동반의 평균사육규모는 한우(비육우포함) 또는 젖소가 10-15두내의, 양돈 100-500두, 육계 3만수 정도이다. 육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도작과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축산의 특성상 미작이나 채소협동반과 같이 농가간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의신협을 통하여 배합사료나 영농자재를 공동구입함으로써 생산비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배합사료의 경우 1포당(25kg) 시중가격에 비해 8%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다.

성축의 판매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상인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우유는 남양유업에 납품하고 있다. 구비의 처리는 일부 채소협동반에 판매하고 대부분 자체에서 소비하고 있다. 볶짚이나 조사료 또한 일부 미작협동반에서 구입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일반농가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5) 농가공협동반

농가공협동반이 태동하게 된것은 1983년 신탁에서 농한기 부업으로 메주가공을 권유하면서 부터이다. 볶짚을 이용한 재래식 가공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메주는 도시신탁의 조합원들에게 공급되어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급량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원료가 되는 국산 메주콩은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량만으로는 부족하여 농협조직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다. 메주의 가공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협동반의 각농가는 신탁으로부터 메주콩을 공급받아 개별단위로 제작하고 가공수수료만을 받고 있다. 현재 가공 수수료는 콩 1가마당(70kg, 메주 40장분) 3만원으로, 93년의 경우 1,560만원의 가공수수료가 지급되었다. 이렇게 가공된 메주는 신탁에서 일괄 관리하며 도시에 공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협동반 농가들은 공동작업에 의하여 수입콩으로도 메주를 가공하여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전체가공량의 90%나 차지한다.

한편, 1986년부터 일본의 유기농업단체에서 우리의 김치를 수입하겠다는 주문이 있어 신탁을 중심으로 생산,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중 1991년 5월 농가공사업의 발전과 연속성을 살리기위해 전의신탁이 주출자자가 되고 조합원들의 출자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조합원들의 출자내역은 총현금출자 2억 3천 2백만원 가운데 전의신탁이 5천만원, 나머지는 14명의 협동반원들이 평균 1천 4백만원씩 출자하였고, 약 7천평의 전과답을 현물출자 하였다. 이렇게 법인으로 발족한 협동조직은 1991년 11월에 가공공장을 준공하면서 김치류와 절임류, 장유류의 생산에 돌입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충남도로부터 전통식품개발 시범사업체로 지정되기도 하였고, 1993년 1월부터는 「약선원 식품」으로 법인명칭도 바뀌었다.

약선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인 배추, 무, 양념류등은 원칙적으로 협동반 및 조합원들이 재배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름이나 겨울철 자체조달이 불가능 할 경우는 고냉지채소나 남해안의 신탁조직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자체조달 할 경우의 구입단가는 가락동 도매시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생산물은 자체차량으로 운반하고 있다. 따라서 수송비 및 판매부대비용(상하차비, 상장수수료, 잡비)의 절감은 물론 판매나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평가할 경우 농민과 약선원 모두에게 절감액만큼의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2. 판매실태

생산협동조직이 생산한 농산물은 주로 전의신협의 주관하에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다. 신협에서는 1983년도부터 메주를 시작으로 도시신협이나 소비자단체등과 직거래를 통해 판매를 시도해 왔으나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을 소재로 하여 본격적인 출하활동이 시작된것은 1989년도부터이다. 약선원의 준공과 더불어 1991년도부터는 김치류가 생산되어 수출 및 국내시판에 들어갔고 1992년도부터는 기존의 메주를 활용하여 재래식된장과 간장이 판매품목에 추가되었다. 출하되는 농산물가운데 잡곡류만이 기존의 관행농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인데 이들 잡곡류는 식품의 안전성면에서 아직까지는 양호하기 때문이다.

신협의 직거래품목확보를 보면, 쌀과 야채류는 협동반과의 계약재배방식으로, 잡곡류는 협동반 및 조합원가운데 해당품목을 생산한 농가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신협에 구두 및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협은 심사를 통하여 재배농가를 결정한다. 심사의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청농가의 영농활동(토양관리정도, 영농경력, 신협과의 거래실적등)과 협동반 회장의 추천을 참고하여 재배농가를 결정하게 된다. 계약은 개별농가단위가 아닌 협동반전체와 이루어지게 되는데, 신협에서는 취급가능품목과 수량만을 제시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배품목이나 재배면적의 결정은 협동반 농가간에 회합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계약시 가격결정은 전의신협의 직거래 담당자가 전년도가격을 참고하여 도시신협이나 소비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잠정가격을 결정한후 협동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확기에 신협이 자체자금을 이용하여수매를 한후 자체창고에 보관한다. 보관된 농산물은 거래처의 주문에 의하여 신협창고에서 선별, 포장된후 신협차량이나 용차에 의해 거래처에 공급된다. 포장단위는 거래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쌀의 경우는 8kg, 40kg, 잡곡류는 일반적으로 1kg단위가 주종이다. 이때 발생하게 되는 운송비 및 포장비등의 비용은 신협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신협은 농가로부터 수매한 가격에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게 된다. 현재 수수료 수준은 쌀이나 잡곡류 80kg기준시 10,000-15,000원 정도이다.

야채류의 경우는 품목의 특성상 선별작업이나 포장작업은 농가나 협동반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거래처로부터의 주문은 신협을 통하거나 협동반에 직접 주문되기도 한다. 그러나 운송은 대부분 신협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선도 유지때문에 협동반자체에서 해결하거나 거래처가 직접 산지까지 가서 조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야채류에 있어서는 신협이 직접 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의 수급관계나 기타 연락사항을 조정하고 전달하는 교량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직거래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 1989년부터 최근까지의 판매실적은 <표3>과 같다.

전의신협을 통해서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총액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물량은 협동반이 생산한 총물량의 약 20%에 해당된다. 품목별로는 신협쌀 100%, 백미 10%, 잡곡류 5%, 농가공품 100%, 야채류 30%이다.

판매추이를 볼때 쌀판매가 약간의 진폭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신품종 도입에 따른 재배면적의 불

안정과 거래처에대한 홍보부족으로 주문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오래전부터 취급하고 있는 메주나 잡곡류는 그 증가 추세가 꾸준하다. 가공류가운데 장류와 김치류는 생산시점이 얼마 되지않아서 뚜렷한 추이를 알 수는 없으나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하고 있는 1회용 김치는 생산량보다 주문량이 더 많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거래 실적이 없는 소비처에 이들 품목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추진할 경우 농가공품의 판매증대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전의신협의 연도별 직거래 추이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주 요 판 매 처	
신협1호(M/T)		34	92	46	71	한살림, 청십자신협 외	
백 미(M/T)	50	50	116	74	113	행당신협의 3개조합	
잡곡류(M/T)	43	50	59	69	77	행당신협의 3개조합	
농 가 공 품	메 주(장)	35,000	38,000	40,600	46,200	46,400	전국신협
	된 장(L)				3,024	6,480	한평신협의 3개조합
	간 장(L)					450	한평신협의 3개조합
	김 치(M/T)		4	51	472	524	수출, 학교급식, 관공서등
야 채 류(백만원)	38	42	49	58	128	한살림, 새생명공동체 등	
총매출액(백만원)	246	376	602	891	1,158		

현재, 전의신협의 주요 판매처는 도시 신협이다. 쌀과 잡곡류는 청십자신협의 8개 신협과 거래를 하고 있고, 야채류는 한살림이나 새생명공동체등 유기농산물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운동단체들과 직거래 하고 있다. 농가공품중 김치류는 일본에 수출도 하고 있으나 연속성을 보장받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소비처의 제약때문에 판매신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판매확대를 위한 거래처 개척이 절실히 요구된다.

IV. 생산협동조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생산협동조직의 문제점

전의신협을 중심으로한 생산협동조직의 활동은 개별농가의 소득증대와 전의지역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다. 그러나 농업생산력의 추구하고 건전한 농업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이들 활동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1) 협동조직간의 협동 미흡

농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모든 자원이 보완, 보합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즉, 개별농가단위에서의 복합화는 어려울지라도 지역단위에서는 경종, 과수, 축산이 결합되어 지역복합의 잇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²⁾. 그러나 현재 전의지역의 협동조직은 동일품목 농가간에는 어느정도 협동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동조직간의 협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협동조직간의 협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의신협외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협동조직간의 협동을 통하는 것이 쌍방 모두에게 경제적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³⁾.

2) 생산기술수준의 저위

8년전에 도입된 유기농법은 전의신협의 생산협동반을 중심으로 어느정도 성과를 견우고 있다. 그러나 재배작목의 범위나 농가간의 확대보급에 있어서는 아직도 일부품목, 일부농가에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유기농법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이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농가간의 기술수준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기술의 적용과정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결여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상품성면에서 열세이고 이를 직거래방식을 통하여 어느정도 극복하고는 있지만 농가간의 기술수준차가 너무 클 경우 판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유기농산물에 있어서도 표준 등급화가 요구되는데 전의지역의 수준이 아직 그 단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현재 전의신협에서는 직원 1명이 생산지도와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판매업무에 모든시간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생산지도를 위한 보수교육이나 현장지도는 불가능 한 실정이다.

3) 판매활동의 부진

현재 전의신협이 거래하고 있는 주요 거래처는 대부분 도시신협이고 몇군데의 소비자단체와도 거

- 2) 농업이 본래적으로 복합화를 지향하는 논거를 金澤夏樹(1984, P.P. 525-526)는 다음의 두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농업은 원래 자연력을 이용하는 측면이 많은 산업으로 이러한 자연력을 균형시키고 물질순환의 원리, 생태계유지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것이 재생산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전문화, 단일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합화에 의해서 가능하다. 둘째는 수익성 추구를 위해서도 복합화는 요청된다. 이는 농업경영이 갖는 측면 즉 고정적 경영자원을 경영내에서 보다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 자원의 집약적 이용이나 조업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3) 賴平은 지역농업이 조직화되고 존속되기 위한 요건으로 「정(+)의 값을 갖는 경제적인 순편익」, 「순효용의 증대」, 「선구적 지도자」의 3가지를 들고 있다(福田 稔外, 1981, P.P. 109-112). 한편 吉田 博(1980, p.p. 139-147)은 농업생산 공동조직의 형성유지조건으로 주체적 요인과 객체적 요인을 들고 있다. 주체적 요인은 조직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나 만족을 말하며 다시 경제적이익은 동일한 조직원이 서로 다른 기간과 비교해서, 그리고 같은 기간에 비조직원과의 비교에 의한 수익성이나 능률의 차이를 말한다. 만족은 비경제적인 것으로서 조직의 발전을 위한 봉사, 위신, 지배적 지위 등이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나는 시간적 구속이나 자유의 속박 때문에 얻게 되는 불만을 증가하는 만족의 차이를 말한다. 한편 객체적 요인으로는 공동조직의 외부조건, 내부조건, 채용수단, 운영방법의 4가지를 들고 있다.

래를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생산협동반이 생산한 농산물 가운데 채소류를 제외한 품목은 개별농가단위로 신협에 판매하고 신협은 이를 구입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한 후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반의 공동판매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야채류의 일부 품목에서 주문물량을 충당하기 위해 농가간에 공동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의신협을 통해서 판매되는 협동반의 출하량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총생산물량의 약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별농가가 독자적으로 거래처를 개척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농가의 거래처 개척에는 한계가 있고 유기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일반농산물 가격수준으로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는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전의신협이 전국의 도시신협을 대상으로 직거래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신협은 64군데로서 거래비율은 4%에 불과하다. 거래비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담당인원과 장비의 절대적 부족 때문이다. 현재 생산과 출하담당직원은 1명이고 신협소유 차량1대를 이용하여 배송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인원과 장비로는 거래처배송도 벅찬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국신협이나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판촉 및 홍보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4)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의 부족

생산협동반중에서 미작협동반만이 몇가지 소형농기계를 공동소유 공동이용하고 있으나 다른 협동반은 그마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채소협동반의 경우 공동작업장의 미비로 출하농산물의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출하농산물의 등급결정이나 포장이 개별농가단위에서 수행됨에 따라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농가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동집하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집을 위하여 각 농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 손실을 보고 있다.

5) 농가공품 원료확보의 어려움

농가공품생산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원료의 확보에 있다. 메주의 원료가 되는 메주콩은 전체 소요량의 단지 10%만을 조합원들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나머지는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으나 매년 전국의 두류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이어서 원료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된장이나 간장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치류생산에 있어서는 계절에 따라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봄과 가을에는 조합원들로부터 무와 배추를 공급받기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여름에는 고냉지채소를 구입해야 하고 겨울에는 남해안에서 조달해야 한다.

1993년 메주 및 장류생산을 위해 1,160가마(1억6천2백만원상당)의 콩을 구입하였고 무와 배추는 5천2백만원어치를 외부에서 구입하였다. 또한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운송비 및 부대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총 6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여름철의 고냉지채소는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약 1억7천만원이상의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다.

2. 생산협동조직의 개선방향

사례지역은 일부 수도작과 채소재배에 유기농법을 도입하여 생산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유기농법이 가능하도록 농가유형간의 자원교환을 통하여 지역농업을 실천하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지역농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는 유기농법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도가 요구된다. 현재 유기농법에 대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전의신협차원에서 (사)한국유기농업협회와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전담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교류는 매우 부진할 뿐만 아니라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농법에 대한 기술습득은 주로 농가자체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따라 기술수준과 적용상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유기농법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별농가 입장에서는 기술을 수용함에 있어 혼란스럽고 생산물의 품질보증 시에도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현실적으로 사례지역의 농가유형간·유형내에서 유기농법 적용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부 수도작에 유기농법을 도입하고 있는 미작협동반 농가는 퇴비제조시에 발효부숙제인 락토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채소협동반농가는 무농약, 무화학비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산야초나 깻묵을 이용하여 퇴비를 제조하고 있다. 또한 채소협동반내에서도 각 농가간에 기술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유기농법을 실천함에 있어 적용하는 기술에 따라 투입되는 자원 특히 노동투하가 다를 수가 있고 생산물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 바람직한 것은 생산협동반내·협동반간 모든 조직원들이 비슷한 기술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유기농업의 실천을 통해 농가자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협차원에서 생산농법에 대한 전담지도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원은 투입노동력을 절감함으로써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농법의 도입과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력이 절약될 경우 유기농법에 의한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재배면적확대를 위해 그만큼 농가유형간의 자원교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는 생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위한 신협과 협동조직간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오늘날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농가 및 지역의 영농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시장거래보다는 직거래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생산협동반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는 전의신협에 출하하고 있으나 일부품목(신협쌀, 메주)을 제외하고는 전의신협을 통해 출하되는 물량은 전체생산량의 20%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개별농가단위에서 독자적인 거래처를 개척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농가의 거래처 개척에는 한계가 있고 가격교섭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판매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협을 통한 출하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신협자체의 출하능력이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출하 및 생산담당직원이 1명일 정도로 인력이나 장비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어서 현

재수준의 물량 배송도 벅찬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위한 판촉이나 홍보 활동은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유기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와 공동출하에 의한 출하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래처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전의신협이 도시신협과 거래하고있는 비율이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가 지원될 경우 새로운 거래처 개척에 대한 여지는 많다. 다만 거래처를 개척함에 있어 전의신협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신협과 협동반조직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전의신협이 모범적인 농촌신협이라 할지라도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협동반의 협력이 없이는 농산물 출하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의 확대가 곤란하다.

결국 사례조직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협동조직이 생산활동에서 뿐만아니라 판매활동에서도 전의신협을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동반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Ⅶ. 결론 및 제언

농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부문간의 보완, 보완관계를 통해 복합생산의 유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오늘날 개별경영단위에서의 복합경영은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범위로 확대하여 경영개선에 대한 자구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즉 개별경영은 주작목에 전문화 함으로써 전문화의 잇점을 살려나가고, 지역단위에서의 경영간 복합화를 통하여 자기완결적인 영농활동이 요구된다.

한편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자기완결적인 영농의 의미가 기존의 생산부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부문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과거의 지역농업활동은 농기계의 공동이용이나 농작업시 공동작업등 주로 생산부문위주로 이루어 졌으나 오늘날 농업여건은 생산부문보다는 오히려 판매부문의 비중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농업의 전개 또한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이 동시에 고려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겠다.

사례지역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농업조직이 지역농민의 필요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신협의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성장하지는 못 하였을 것이다. 반면에 행정조직이나 농업관련단체들에 의하여 생산기반이나 생산기술, 유통관련정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자금지원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현재보다도 더욱 체계적인 지역농업활동이 수행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기능이나 역할 또는 참여정도가 지역농업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이들의 활동정도에 따라 지역자원의 이용도가 달라질 수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모습이 바뀌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개별농민, 농업관련조직 및 단체등 농업과 관련있는 경제주체들이 포함되는 지역복합체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복합체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보완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지역자원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지역농업의 전개를 위한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농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된

다는 전제하에 농업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농업여건하에서 이러한 지역농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례지역의 조직유형에서 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세가지측면으로 그 과제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생산력추구형의 지역농업이 되어야 하겠다. 둘째, 시장경제의 흐름속에서 농업경영자로서의 소득의 안정과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대응형의 지역농업이 되어야 한다. 셋째, 생산력추구와 시장대응이 가능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까지를 포함한 지역자립형의 지역농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외적 농업여건을 고려 할 때 이러한 지역농업의 과제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내 참가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농업관련기관들의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 되었을 때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姜昌容(1993), 「韓國 農村契約形態의 變化에 關한 研究」, 全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權元達外(1992), 「農産物 産地直去來 改善方向」, 忠北大學校.
- 權宅晋(1988), 「地域單位 農業生産組織을 위한 計劃模型 開發」, 「農林論集」第28輯, 高麗大學校 農科大學.
- 金炳道(1988), 「地方化時代의 地域農業開發方向」, 「農業經濟研究」第28輯, 韓國農業經濟學會.
- 金聖昊外(1992a), 「村落構造變動과 農業構造轉換에 關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 金正鎬外(1990) 「전업농육성과 영농조직 활성화 방향」, 韓國農村經濟研究院.
- 金濤(1993), 「有機農産物의 生産 및 消費實態와 流通系列化에 關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金熙昇(1992), 「촌락공동체의 잔존요인에 關한 연구」, 「農業政策研究」, 第19卷第1號, 韓國農業政策學會.
- 농협중앙회(1984), 「농협의 지역농업 종합개발방향」.
- 류종완외(1991), 「농업생산조직의 유형과 농업구조문제에 關한 연구」, 「農業政策研究」, 第18卷 第1號, 韓國農業政策學會.
- 朴珍道外(1993), 「農業構造再編과 地域農業의 發展方向」, 忠南大學校 地域開發研究所.
- 朴炫泰(1994), 「小地域單位 營農計劃模型의 設定과 適用性에 關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燕岐郡農村指導所(1993), 「燕岐郡 地域農業開發 技術指導計劃(1992-1996)」.
- 윤석원(1992), 「마을集團化를 통한 農村 마을 長期發展方向」 「農業政策研究」, 第19卷 第1號, 韓國農業政策學會.
- 李來秀(1991), 「地域農業 開發推進을 위한 農民組織化와 農協의 役割」, 「農業經濟研究」第28輯, 韓國農業經濟學會.
- 이영기(1992), 「한국농업의 구조변화에 關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博士學位論文.
- 趙完衡(1986), 「小地域單位 農業生産計劃의 接近方法에 關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許信行(1984), 「地域農業과 複合營農」, 韓國農村經濟研究院.
- 울슨, 윤여덕譯(1987), 「집단행동의 논리」, 청림출판.
- 高橋正郎(1987), 「地域農業의 組織革新」, 農山漁村文化協會.
- 金澤夏樹(1984), 「地域農業의 複合化」, 地球社.
- 吉田博(1980), 「農業生産共同組織論」, 農林統計協會.
- 吉田忠(1980), 「地域農業と 農業經營」, 明文書房.
- 賴平編(1982), 「農業經營計劃論」, 地球社.
- 福田 稔(1977), 「農業生産組織의 新展開」, 明文書房.
- 外(1981), 「農村地域의 再編と管理」, 明文書房.

- 伊藤忠雄(1991), 「現代農業生産組織の經營論」, 農林統計協會.
- 酒井惇一(1982), 「地域農業複合化の理論と實踐」, 家の光協會.
- Hamilton, J.R. & N.K. Whittlesey & M.H. Robinson & J. Ellis(1991), "Economic Impact, Value Added, and Benefits in Regional Project Analysis", Amer. Journal of Agr. Eco., Vol. 73.
- Hayes, M.N. & A.L. Olmstead(1984), "Farm Size and Community Quality : Arvin and Dinuba Revisited", Amer. Journal of Agr. Eco., Vol. 66.
- Olsson, M. (1985), "Space, Agriculture, and Organization", Amer. Journal of Agr. Eco., Vol. 67.
- Shumway, C.R. & W.P. Alexander(1988), "Agricultural Product Supplies and Input Demands: Regional Comparisons", Amer. Journal of Agr. Eco., Vol. 70.
- Vercammen, J & M. Fulton(1990),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Farm Interest Groups, Beliefs", Amer. Journal of Agr. Eco., Vol. 72.